

七情에 關한 文獻的 考察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Chiljeong(七情)

柳 東 仁* · 柳 熙 英**

I. 緒 論

지금까지 알려진 東洋醫學의 最古의 醫書로는 漢代『五十二病方』(475 B. C.)인데 여기에 癩疾에 대한 記錄이 실려 있으며, 楊上善이 整理한 『太素』(668 A. D.)에 喜怒에 관한 記錄이 나오는 바 “喜怒하여 먹고자 하지 않고 말수가 더욱 적은 것은 足太陰을 刺하고, 怒하되 多言한 것은 足少陽을 刺하라 (喜怒而不欲食 言益少 刺足太陰 怒而多言 刺足少陽)²⁵⁾” 한 것이 그것이니 이처럼 精神科의 問題는 당시에 臨床的 價値가 認定되었던 것 같다. 以後 七情은 內人의 한 부분으로 重要시되어 이것으로 부터 誘發되는 病變과 治療에 관한 많은 理論들이 導出되었다.

朱子學 以前의 北宋 性理學이 11世紀末, 12世紀初에서부터 金良鑑 등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13세기 말에는 安昫 등으로 해서 朱子學이 傳來되었고, 마침내 14世紀 中葉 李齊賢 등에 이르러서는 그 朱子學導入에 하나의 段落을 지을 정도가 되었으며, 14世紀 後半에는 李穡, 鄭夢周 등에 의하여 程朱의 性理學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¹⁶⁾고 하였다. 朝鮮朝에 儒學이 國是가 되면서 그 學問의 깊이가 더하여져 退溪 栗谷에 이르러서는 中國의 性理學 보다 더 發展하여 最高의 隆盛期를 맞이하였다. 朱子 以後 性理學은 中國에 있어서는 宇宙論이 中心이 되었지만 朝鮮朝에서는 退溪와 高峯사이의 四端七情論辨으로 말미암아 그 以後의 學風은 거의 心性論 探究가 그 主된 課題로 登場했다¹³⁾하였다.

여기에서 이들 性理學者들은 善惡의 側面에서 七情을 研究하였던 바, 價值的이고 倫理的인 性情觀을 수립하였으니 人間 精神의 全般的 理解라는 점에서 보면 意味있는 對象이라 할 것이다.

東武의 『壽世保元』과 『格致彙』를 보면 그는 性理學의 토양에서 成長했으며 朱子學의 傳統을 踏襲하지 않고 四象이란 構造 속에 오직 四書와 易學을 담았을 뿐이며, 醫學의인 面에서도 傳統的 理論에 基礎하지 않고 獨自의인 體系를 이룬 바, 性情에 關하여는 人體內의 生理的 現象과 天機 人事와의 聯關性을 맺음으로써 倫理的 醫學觀을 세웠다²⁰⁾하였다.

精神現象의 全體性을 追求하는 것은 多樣한 精神科의 問題에 對處하는데 必須的이며 따라서 이런 倫理的인 側面이 全히 論外일 수 없을 것이니 이에 心身醫學은 人間의 全體의인 面이 對象이 되는 만큼, 이러한 研究는 個人 및 社會의 道德倫理喪失의 病理現象에 대한 解決의 基礎를 마련하므로써 既存의 方法을 補完한다는데 意義가 있다 생각되어 우리나라의 性理學과 內徑 및 東武說을 중심으로 七情에 관하여 考察한 結果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 方法

1. 『內經』, 張介賓의 『張氏類經』, 皇甫謐의 『鍼灸甲乙經』, 許浚의 『東醫寶鑑』 및 徐有渠의 『林園十六志』 등에서 七情의 生理 病理 治心法 등을 簡略하게 살폈으며,

* 圓光大學校 大學院

** 尚志大學校

- 2.性理學關聯文獻에서 理氣論 四端七情 修養論을 살펴 보고,
- 3.四象醫學說에서 喜怒哀樂이 四類型의 生理 病理에 미치는 影響과 保養法을 살펴 보았다.

III. 本 論

1. 七情에 關한內經 및 傳統醫學의 觀點

1) 七情의 定義

七情은 喜·怒·憂·思·悲·驚·恐이다.^{9,18}

³²⁾이것은 한몸의 君主가 되는 心에 간직된 神明에 의하여 統攝되는데, 사람의 情志는 體內的 機能調節이 正常으로 外界의 環境條件에 對한 反應活動과 刺戟에 대한 反應이라⁹⁾하였다.

2) 七情의 生理

七情을 統攝하는 主體인 神은, 胚胎가 始作되면서 同時에 神이 깃들며¹⁸⁾, 하늘에서 받아들인 五氣는 心·肺臟에 간직되어 위로 五色과 音聲이 明彰하게 될 수 있으며, 땅에서 받아들인 五味는 腸·胃에 간직되어 五氣를 기르는 바, 氣가 調和를 이루면 津液을 생하며¹⁰⁾, 氣와 味가 서로 이루면 神이 自生한다¹⁰⁾하였다. 이는 神이 生命體가 發生하기 始作하면서 깃들어 氣·味의 物質的 基礎 위에서 그 機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¹⁸⁾五臟은 神을 간직하는데 神(心臟)·魂(肝臟)·魄(肺臟)·意智(脾臟)·精志(腎臟)이며 ¹⁰⁾, 이들 사이의 作用은 父母의 兩精이 交合하여 生命이 誕生될 때 神이 깃들게 되므로 神은 精氣가 化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魂은 神을 따라 往來하여 神氣의 輔弼이 되며, 魄은 精을 아울러 出入하여 精氣를 돕는 것이며, 意는 心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한 생각이 떠오를 때 뜻하는 바가 있으나 아직 決定되지 않은 것으로 意思·意向을 뜻하며, 志는 意가 保存된 것으로 自己의 意思가 이미 決定되어 변치 않는 것을 말하며, 智는 慮로 因하여 事物을 處理하는 것으로 어떠한 疑心과 걱정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方法을 選擇하는 判斷力이며, 精은 生의 根源으로 形體에 앞서 陰陽

의 兩神이 合하여 生命體를 이루는 것이라^{10,18)}하였다.

五臟에 應하는 情志는 心臟은 喜, 肝臟은 怒, 肺臟은 憂悲, 脾臟은 思, 腎臟은 驚恐이라³²⁾하였다. 이들 가운데 思는 志로 因하여 保存된 것을 變化시킬 수 있는, 즉 이미 確定된 自己 意思라도 이를 생각해 보아 다시 變更시킬 수 있는¹⁸⁾神의 하나로서의 思와 함께 情과 神의 領域에 걸쳐 存在한다.

七情이 氣의 變化에 미치는 影響은, 喜는 氣緩한데 대개 喜는 氣가 調和되고 志가 暢達하여 榮衛가 通利하기 때문이며, 怒는 氣上하며, 憂는 氣沈하며, 思는 氣結하며, 悲는 氣消하며, 驚은 氣亂하며, 恐은 氣下하는 것이라¹⁰⁾ 했다.

3) 七情의 病理 및 症狀

○喜:

喜가 損傷시키는 臟은 心臟 肺臟이다.^{10,26,32)} ³⁴⁾心臟은 喜가 本來 屬하는 臟이며, 陽에서 생기는 喜는 心臟에서 발출하여 陽臟(陰中の 陽인 臟)인 肺臟으로 轉移되니 多陽하면 多喜하며, 節度에 지나치면 心臟 肺臟이 모두 傷한다²⁶⁾하였다.

喜樂은 神이 넓게 흩어져 간직되지 못하게 하며, 肺가 喜樂이 그지 없으면 魄을 傷하게 하며, 結果적으로 狂을 發하여 意가 保存되지 않는다¹⁰⁾하였다. 意를 保存하는 것을 志라 하였으니 이 志가 제 機能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肺金이 간직하는 魄이 傷하는 것과 腎水가 간직하는 志의 機能이 不全하는 것은 母臟의 神이 傷함으로 해서 子臟의 神이 損傷되는 한 例가 될 것이다.

陰邪, 곧 病의 內因으로 喜怒(七情)가 있다^{9,10)}하였다. 여기에 虛實이 있어, 實邪는 喜怒가 節度에 맞지 않아 陰氣가 위로 거스르며, 結果 下部가 虛해져 陽氣가 그 虛한 곳으로 注入되므로 實하다 하고, 虛邪는, 喜는 氣下하고 悲는 氣消하며 消하면 脈이 空虛하니 寒과 飲食失常으로 因하여 寒氣가 熏滿하여 血이 澁(原文은 泣)하여 지고

氣가 去하므로 虛하다¹⁰⁾하였다.

喜가 心을 傷하면 빨리 걸을 수도, 오래 서 있을 수도 없다³²⁾하였으며, 喜怒(七情)는 氣를 損傷시키는데 暴喜는 陽을, 暴怒는 陰을 損傷시켜, 厥逆한 氣가 上行하고 脈에 가득하여 形體를 벗어난다¹⁰⁾하였다.

喜怒不測하면 陰氣는 不足하고 陽氣는 有餘하며 榮衛가 行하여지지 않으므로 癰疽를 일으킨다³²⁾하였다.

○怒 :

怒가 損傷시키는 臟腑는 肝臟·心臟·腎臟·膽이다.^{10,26)}肝臟은 怒가 本來 屬하는 臟이며, 膽은 肝과 表裏가 되어 肝이 비록 强하나 膽으로부터 決定을 받으므로 膽이 怒를 다스리며, 心臟은 血이 上을 氣가 下를 아울러 心이 變완하고 자주 怒하는것은 陰이 陽을 이기므로 病이 心臟에 미치며, 腎臟은 盛怒하여 그치지 않으면 志를 傷하니 理由없이 자주 怒하면 怒가 陰에서 發하여 腎臟에 侵入하기 때문이라²⁶⁾하였다.

七情 가운데 怒가 몸을 害치는 것이 제일甚하다. 이는 大概 怒하여 肝木이 脾土를 克하면 脾가 損傷되고 結局 其他 四臟도 모두 損傷을 입게 되기 때문이라³²⁾했다.

怒가 肝을 損傷시키는 機轉은, 大怒하면 氣가 上昇하여 下降하지 않으므로 脇下에 쌓여 肝을 損傷시킨다¹⁰⁾하였다.

자주 怒하면 風熱이 땅 가운데 陷下하며¹⁰⁾, 怒狂 곧 陽厥은 陽에서 생긴 것이며 陽氣는 暴絶하되 難決하므로 잘 怒한다¹⁰⁾하였다.

怒가 過度하여 생기는 病 및 症狀은 薄厥¹⁰⁾善忘其前言 腰脊不可以俛仰屈伸¹⁰⁾嘔血殮泄¹⁰⁾短氣欲絶不得息³²⁾昏迷惶惑²⁶⁾鬢髮焦 筋萎爲勞 夜夢飛揚 寤咆¹⁴⁾라 하였다.

○憂 :

憂가 損傷시키는 臟腑는 肺臟·心臟·肝臟·脾臟이다.^{10,26)}肺臟은 憂가 本來 屬하는 臟이며,

心臟은 心이 變動하여 憂한 것과, 小心하여 쉽게 憂한 것이 있겠는데 大概 憂하면 神이 傷하므로 心臟이 損傷되며, 肝臟은 精氣가 肝臟을 아울러 憂한 것이니 肝臟이 勝하여 脾臟을 侮蔑하며, 脾臟은 中氣를 主管하는데 中氣가 抑壓을 받으면 意가 퍼지지 못하므로 鬱滯되어 憂가 되는 것이다²⁶⁾하였다.

憂가 過度하여 생기는 病 및 症狀은 惋亂 四肢不舉¹⁰⁾隔塞否閉氣 脈斷絶而上下不通 大小便道偏不得通泄¹⁰⁾六輸不通 溫氣不行 積¹⁴⁾肺勞 胸膈逆滿 背隱痛不已¹⁴⁾心攝¹⁴⁾夢寐不安¹⁴⁾月水時多少 肉熱苦渴 肌體枯黑¹⁴⁾이라 하였다.

○思 :

思가 損傷시키는 臟腑는 脾臟·心臟이다.^{10,26)}脾臟은 思가 本來 屬하는 臟이니 思는 心이 保存되는 바가 있고 神이 돌아가는 곳이 있어 正氣가 머물러 運行하지 못하므로 氣가 結한다 하였으며, 心臟은 脾臟의 母이므로 母氣가 運行되지 못하면 病이 그 자에 미친다 하였으며 思는 脾臟에서 發하여 心臟에서 이루어지니 節度에 지나치면 心·脾臟이 모두 傷한다^{26,34)}하였다.

思가 過度하여 생기는 病 및 症狀은, 恐懼自失 破근脫肉¹⁰⁾不得飲食 腹脹滿 四肢怠惰¹⁴⁾喘而積氣在中 時害於食¹⁴⁾五噎¹⁴⁾吐衄髮焦¹⁴⁾口苦¹⁴⁾喉熱不散¹⁴⁾이라 했다.

情仁晚情仁晚

○悲 :

悲가 損傷시키는 臟은 肝臟·肺臟·心臟이다. 情氣가 肺臟을 아우르면 悲한다 하였으며; 悲哀가 肝臟을 激動시키면 魂을 損傷케 하므로 肝臟을 傷하게 한다 하였으며; 心虛하거나 神不足하면 悲가 되며, 또한 悲哀가 太甚하면 包絡이 絶하여지고 陽氣가 內動하여 心下崩數수를 發하며, 血病은 悲가 心臟을 傷하는 것이니 肺·肝·心·三臟 모두 悲로부터 病들어 氣消하게 된다²⁶⁾ 하였다.

悲가 過度하여 생기는 病 및 症狀은 心下崩數

寸 氣上賁鬱 心包及肺系氣急 狂³⁰⁾. 狂忘不精 陰縮而攣筋 兩脇骨不舉¹⁰⁾善忘不識人 置物在處還取不得 竭絕而失生 熱氣在中 筋攣四肢浮腫¹⁴⁾이라 하였다.

○驚:

驚이 損傷시키는 臟腑는 肝臟·脾臟·胃·心臟이다. 東方色靑(望診時 顔靑한 것)은 肝臟에 入通한 것이니 肝臟이 病들면 驚駭를 發하며; 이 肝臟은 東方風木에 應하고 風은 震動을 主管하여 膽에 이어지며; 陽明이 甚하면 厥이 되니 木音을 듣고 情然하게 驚하는 것은 肝臟이 胃를 乘하는 것이며; 驚하면 心臟이 依支할 곳이 없고 神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은 心神이 散失한 것이니 이는 肝臟·膽·胃·心臟 모두 驚으로 病들어 氣가 亂한 것이라²⁶⁾하였다.

先天的으로 癲疾이 있는 것은 妊娠婦가 大驚하여 氣上而不下하고 精과 氣가 아울러 胃에 居하기 때문이라¹⁰⁾했다. 癲은 主로 七情所鬱로 津聚하여 痰을 形成하고 痰이 上逆함으로써 神志가 昏朦해져서 自主力을 잃는 것이니⁹⁾, 母의 歪曲된 氣의 狀態가 胎兒와 交感하여 神志를 昏朦하게 한다 하겠다.

驚狂은 血이 陰을, 氣가 陽을 아울러서 생긴다¹⁰⁾하였다.

驚은 心臟이 卒動하여 便安치 않은 것이며, 悸는 心臟이 跳動하여 迫驚한 것이니³²⁾, 驚悸는 思慮過度와 大驚恐으로 因하여 생기며, 심하여지면 心跳欲厥³²⁾한다 하였으며, 傷寒에 飲水가 많으면 반드시 心下悸가 되는 것은 火가 水를 두려워 여오직 腎臟이 心臟을 欺하기 때문이라³²⁾는 것이며, 五飲이 停留하여 中腕을 閉塞하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驚悸케 한다³²⁾하였다.

事로 因하여 大驚하면 恐이 스스로 解消되지 못하고 膽氣가 壯하지 못하며 神魂이 不安하여서

心虛煩悶 自汗 體浮 食欲無味하며¹⁴⁾, 驚恐憂思가 臟腑를 傷하여 氣가 逆上하면 吐血한다¹⁴⁾하였다.

○恐:

恐이 損傷시키는 臟腑는 心臟·腎臟·肝臟·脾臟·胃이다. 腎臟은 恐이 本來 屬하는 臟이며, 恐懼하면 心을 상하고 神이 傷하면 恐하며, 血이 不足하면 恐하며, 肝은 將軍之官이므로 肝氣不足하면 怯이 들고 恐하며, 恐하면 脾氣가 乘하는 것은 神虛하므로 脾臟이 腎臟을 勝하며, 胃가 氣逆 얼 恐이 되는 것은 陽明의 土가 勝하여 또한 腎을 傷하니 心臟·腎臟·肝臟·脾臟·胃 모두 恐을 主管하며 恐하면 氣下한다²⁶⁾하였다.

恐懼하면 神이 넓게 흩어져 거두어지지 못하며¹⁰⁾, 恐懼가 解消되지 못하면 精을 傷하여 骨산 精時 精時自下하게 되고, 五臟이 지키지 못하며, 陰이 虛하여 氣가 건디어내지 못한다¹⁴⁾하였다.

胃熱하면 腎氣가 微弱해지므로 恐하며, 또한 精氣가 腎臟을 아우르면 恐한 것은 心虛한 것으로 말미암아 腎氣가 그것을 아우르기 때문이라³²⁾하였다.

크게 恐하면 腎臟을 傷하며, 恐이 없어지지 않으면 志가 恍惚不樂하다 하였으며, 恐하면 情이 물러나며, 上焦가 막히며, 氣逆하며 下焦가 脹하게 되어 氣가 이내 運行되지 못한다¹⁴⁾하였다.

4) 診 斷

〈脈 診〉

○『入門』의 脈法

七情의 脈은 氣口가 緊盛할 따름이라 하였다. 喜·怒·憂·思·悲·驚·恐은 心·肝·肺·脾·心包·膽·腎을 損傷시키며, 그 脈은 虛(惑은 散而虛) 濡·瀉(惑은 沈瀉) 結(惑은 短而結) 緊·動·沈하며, 甚하면 沈·瀉·洪·弦·虛·散·濡한다³⁰⁾하였다. (表. 1)

< 表. 1 >

情志	喜	怒	憂	思	悲	驚	恐
所傷	心	肝	肺	悲	心包	膽	腎
脈象	虛 (散而虛)	濡	瀼 (沈瀼)	結 (短而結)	緊	動	沈
甚則	沈	瀼	洪	弦	虛	散	濡

七情之脈 惟氣口緊盛而已

○「得效方」脈法

喜·怒·憂·思·脾·驚·恐의 脈象은 散·

促(혹은 數) 濡·沈(惑은 結)·結(惑은 緊)·顛
(惑은 動)·沈하다³²⁾하였다. (表 2)

< 表. 2 >

情志	喜	怒	憂	思	悲	驚	恐
脈象	散	促 (數)	澁	沈 (結)	結 (緊)	顛 (動)	沈

○其他의 脈法

驚悸하더라도 마음이 原因되면 脈은 반드시 結代하나, 飲食이 原因되면 沈·伏·動·滑한다³²⁾하였다. 驚과 悸는 脈象의 差異가 있는데 寸口 脈이 動하면 驚이고 弱하면 悸이며, 肝脈이 動이면 갑작스럽게 驚駭한 바가 있다³²⁾하였다.

그리고 恐怖의 脈은 실을 어루만질 때 처럼 連續되듯 하다³²⁾하였다.

『入門』과 『得效方』의 記錄을 比較해 보면 怒를

除外한 나머지 情志의 脈象이 多少間의 類似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情志에 대하여 多樣한 脈象이 나타날 수 있다면 診斷上 特異性을 잃게 되므로 그것을 補完할 診斷法을 開發해야 하며, 脈診은 表情과 情志가 一致하지 않는 境遇 內面의 情志를 把握하는데 有用할 것이다.

< 夢診 >

『靈樞』〈淫邪發夢〉에, 꿈에 나타나는 情志와 臟氣와의 關係는 陰氣가 旺盛하면 큰 물을 건너

며 두려워하는 꿈을 꾸며 肝氣가 旺盛하면 怒하는 꿈을 꾸며 肺氣가 旺盛하면 두려워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며 나르는 꿈을 꾸며 心氣가 旺盛하면 잘 웃고 두려워하는 꿈을 꾸며 脾氣가 旺盛하면 노래부르고 즐거워하는 꿈을 꾸다¹⁰⁾하였다. 즉 꿈에 나타나는 情志는 그것이 本來 屬하는 臟의 氣가 旺盛한 것과 關係있다고 하겠다.

5) 治心法

○喜怒哀:

喜怒를 고르게 하고 調和롭게 하는 것은 이러한 情志를 지나치지 않도록, 即 적게 하는 것이 重要하니 競爭하지 말고 마음을 清涼하게 하며, 心志를 바꾸며, 喜怒하더라도 喜는 湛然한 性을 탕動시키지 말고 怒는 結然之氣를 結滯시키지 말도록 하며 더욱 元氣로 喜怒를 補佐하도록 하여야 한다¹⁴⁾하였다.

○思:

思는 점점 제거되어 人身이 虛無하되 遊泳하는 氣만 있으며 氣息이 理致를 얻으면 모든 病이 생기지 않는다 하였으며, 道는 煩惱하는데 있지 않으니 다만 衣食과 聲色과 勝負와 得失과 榮辱을 생각하지 않고 心神을 勞極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오래 살 수 있으며 생각을 지나치게 하고 飲食이 節度가 없으면 큰 病을 키우게 된다¹⁴⁾하였다.

○驚:

驚은 陽이니 밖으로 부터 들어와 膽을 傷하게 하며, 神이 上越하므로 神을 거두어 平安하게 하려면 아래를 따라 案席(계)을 두드려 下視케 해야 한다³²⁾하였다. 이는 勇敢하도록 복돋움으로써 損傷된 膽氣를 回復시키는 方法이라 할 수 있다.

○存天真¹⁰⁾:

恬憺虛無하면 眞氣가 그것을 따르며, 情神이 內를 지키면 病이 들지 않으니, 이로써 마음은 閑暇롭고 慾心은 적으며, 마음이 安定되어 두려

워하지 않으며, 몸을 부리더라도 倦怠롭지 않으며, 氣는 順理를 따르며, 각각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좇아도 願하는 바를 얻으므로 衣食에 滿足하며 風俗을 즐기며 貴한 身分을 부러워하지 않으므로 素朴하다 하며, 이로써 그 慾望이 그 눈을 受苦롭게 할 수 없으며, 淫邪가 그 마음을 迷惑하게 할 수 없으며, 愚鈍한 사람 智慧로운 사람 賢明한 사람 不肖한 사람 모두 事物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道에 符合된다 하였다.

○四氣調神¹⁰⁾:

春三月은 밤이 깊어 잠이 들고 일찍 일어나며, 뜰을 큰 걸음으로 거닐며, 머리털을 덮고 몸을 서서히 움직여 志를 生하게 하며, 살려주되 죽이지 말며, 주되 빼앗지 말며, 賞을 주되 罰하지 말라 하였다.

夏三月은 밤이 깊어 잠이 들고 일찍 일어나며, 낮(낮의 더움)을 싫어하지 않으며, 志를 怒하게 하지 말며, 華英(神氣)을 成秀케 하며, 밖에 있는 것을 좋아하여 氣를 泄하게 하라 하였다.

秋三月은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기를 닮과 함께 하며 (이때 일찍 일어나는 것은 春夏보다 조금 늦다), 志를 安寧케 하여 秋形을 緩和시키며, 神氣를 收斂하여 秋氣를 平安하게 하며, 그 志를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 肺氣를 清涼하게 하라 하였다.

冬三月은 일찍 잠들고 늦게 일어나기를 꼭 동이 틀 때를 기다려 하며, 志를 옳드리고 숨겨 私意가 있거든 이미 얻은 것 처럼 하며, 추위를 멀리하고 따뜻한 곳에 나아가며, 皮膚를 泄하지 말아 氣가 逸脫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以上은 四時의 生長 收藏하는 氣에 順應하여 神氣도 이에 副應해야 함을 말한 것이니 모름지기 志를 平安케 하여야 하며, 特히 이것으로 하여금 怒하지 말게 하라 한 것은 七情 가운데 克治하여야 할 가장 重要한 情志라 認識한 것 같다.

○以情勝情:

『素問』〈陰陽應象大論〉에 情志로 情志를 이기게 하는 法이 실려 있다.

어떤 情志이든 그 것이 지나치면 臟氣를 傷하게 하므로 “悲勝怒 恐勝喜 喜勝憂 怒勝思 思勝恐¹⁰⁾” 처럼 相剋關係에 있는 臟의 情志에 依하여 過度한 情志를 억눌러, 그로 因한 臟腑의 損傷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七情에 關한 性理學的 觀點

性理學에서는 七情을 善惡的 側面에서 窮究하였던 바, 그 原理의인 面을 理氣 四端七情論에서, 實踐의인 面을 修養論에서 살피고자 한다.

1) 理氣論

理氣는 性理學에서 重要的 部分을 차지하는데 朱子는 이로써 本體宇宙論을 構成했다²⁹⁾ 하였다. 理와 氣의 概念은 그가 黃道夫에 答한 글에서 “天地 사이에 理와 氣가 있는데 理는 形而上의 道이며 事物을 生하게 하는 根本이고, 氣는 形而下의 器이며 事物을 生하는 道具이다. 이로써 人物의 남은 이러한 理를 稟하고 나서 性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氣를 稟한 뒤에야 形이 있게 된다. 그 性과 形은 비록 한 몸을 벗어나 있지 않지만 道와 器 사이에는 나뉜 境界가 뚜렷하니 混沌될 수 없다.”^{29, 35)}라고 한 것을 보면 理는 形而上의 道體로서 萬物의 本體가 되고 遍在的이어서 普遍性의 理가 되고, 이 理가 氣에 稟賦되어 成物하면 그 物件의 性이 되니 이 것이 特殊性의 理라 하였으며, 氣는 形而下의 形象으로서 萬物의 體質이 된다^{1, 29)} 하였다. 그리고 理와 氣의 存在樣相은 理氣가 떨어져 存在하지 않지만 서로 뒤섞여 分別이 없는 것도 아니라²⁹⁾ 했다. 이들 사이의 關係는 所然 곧 實際 그러한 것이 氣이고, 所以然 곧 實際 그러한도록 하는 것이 理라 했다. 그리고 實然(所然)은 靜과 動의 두 狀態가 있으므로 理는 靜動의 所以然이며 實然과 所以然是 恒常 같이 있으므로 不離하다고 하며, 本質이 서로 다르

므로 不雜하다²⁹⁾ 하였다. 여기서 所以然의 理由는 마땅히 그러하여야 할 法則과 함께 理를 이루니²⁹⁾, 君臣에게는 君臣의 理가, 父子에게는 父子의 理가 있으며 夫婦·兄弟·朋友는 勿論 起居·出入·應事·接物에 이르기까지 各各 理가 없을 수 없어서 이것을 窮究해 보면 君臣처럼 큰 데에서 事物의 미미한 것에 이르기 까지가 所以然과 所當然을 모를 수 없다²⁹⁾ 하였다. 따라서 이는 天道와 人道를 貫通하는 것으로 天地에 있어서는 天地變化와 化生萬物하는 原理가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道德行爲가 可能的 先天的 根據가 된다²⁹⁾ 하였다.

退溪와 栗谷이 비록 朱子를 繼承하였지만 理氣를 보는 視覺에 差異가 있었다.

(1) 退溪說

“太極의 動靜이 있음은 太極이 스스로 動靜함 이요 天命의 流行은 天命이 스스로 運行함이다. 어찌 다시 이를 使役하는 것이 있겠는가?”^{6, 13, 24)}라 하여 理를 動靜하고 流行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太極이나 天命이라^{1, 13)} 하였다.

이에 대하여 氣는 “무릇 貌象과 形氣가 있어 六畝안에 가득 찬 것은 모두 器”라 하여 形而下의 器²⁴⁾라 하였으며, “이르러서는 펼치고 엉기어서는 드러나 有로 되는 것이며, 돌이켜서는 돌아가고 사라져서는 滅해져 無로 된다.”²⁴⁾하여 凝聚하면 有로되고, 發散하면 無로 된다 하였다.

理와 氣는 相互作用에 對해서는 理는 氣의 將帥가 되고, 氣는 理의 卒徒가 되며; 理없는 氣도 없고 氣없는 理도 없으며; 陰陽(氣)은 太極(理)에서 난 것인데, 理·氣가 본래 一物이라면, 太極이 곧 兩儀이므로 能生者가 없게 되며, 眞(無極의 眞理)이니 精(陰陽五行의 精氣)이니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妙하게 合하여 엉긴다²⁴⁾ 했다. 즉 理는 理이고 氣는 氣이며, 理氣가 妙合하므로 不可分開하는 가운데, 理는 氣를 主宰하고 氣는 理의 材料가 되며, 太極이 動하여 陰陽이 생기므로 理는 發動하는 活物, 곧 能生者¹³⁾라 했

다.

理氣의 價値論의 特性은, 氣의 境遇, “湛一은 氣의 本體인데 이 때를 당해서 아직 惡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氣가 어찌 능히 純善일 수 있겠는가? 오직 이 氣가 用事하지 않을 때는 理가 主가 되므로 純善일 따름이다.”²⁴⁾라 한 것은, 氣의 本體를 湛一淸虛한 것으로 봄으로 外物에 感하지 않은 狀態 卽 喜怒哀樂의 未發狀態를 湛一純一한 것으로서 純善으로 보는 氣一元論의 見解와는 달리, 心의 未發한 狀態는 湛一氣로서 氣의 本體이지만 이것을 惡이라 말할 수 없을지라도 純善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未發時에는 理가 主로 되어 氣가 作用하지 않으므로 純善이라¹¹⁾는 것이다. 이 氣의 善惡의 價値論의 解明에 있어서는 人間主體와의 關聯에서 보아야 하므로 氣를 恒常 形氣의 側面에서 다루어 “사람의 一身은 理와 氣를 兼備한 것인데 理는 貴하고 氣는 賤하나, 理는 無爲이요 氣는 有欲”이라¹³⁾한 바, 理를 無爲, 氣를 有欲으로 본 것은 理를 理性으로서 純粹한 精神體로, 氣를 感性으로서 身體 가운데 充滿된 血氣로¹³⁾본 것이다. 그리고 無爲로서의 理는 極尊無對하여 物을 命令하는 것이지, 物의 命令을 받는 것이 아니니, 氣의 마땅히 이길 바가 아니라²⁴⁾했다.

退溪는 周濂溪의 『太極圖說』과 『周易』의 復卦에 依據하여 理와 氣로서 宇宙論을 展開한다¹³⁾하였다. 『太極圖說』은 無極而太極이란 存在를 設定하고, 太極의 動靜에 依하여 陰陽으로 分化하고 陰陽을 다시 五行으로 分化하는데 無極之眞과 二五之精(氣)이 妙合하여 凝聚함으로써 萬物이 化生된다는 것으로 宇宙生命論을 말한 것이며, 太極이 動하여서는 陽을 낳고, 動이 至極하면 靜이 되어 太極이 靜하여서는 陰을 낳게 되며, 이 靜이 至極하면 다시 動하니 이 動靜이 한번씩 번갈아 서로 뿌리가 된다 하였으며, 退溪는 여기서의 太極動而生陽을 ‘理가 動하여 氣가 生하는 것’이라¹³⁾하였다.

이에 대해 『周易』의 復卦(䷗)는 純陰인 坤卦

〈䷁〉에서 一陽이 비로소 生하는 것으로 積陰 곧 坤卦의 밑에서 一陽(一)이 反復되어 생기는 것 즉 復生하여 〈䷗〉가 됨으로써 天地가 萬物을 生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으니, 宇宙 運行의 生理를 말한 것이며, 延平(朱子의 先生 李侗)은 復卦를 ‘動하여 陽을 生하는 理’라 하였으며, 退溪는 이것을 ‘氣가 動하여 理가 드러난다’고 解析하였다¹³⁾하였다. 要約하면, 宇宙造化를 理動과 氣動의 兩面으로 보고 理의 造化에 대해서는 ‘理가 動하면 氣가 따라서 생긴다.’ 하여 宇宙의 生成論의 側面을 말한 것이고, 氣의 造化에 대해서는 ‘氣가 動하면 理는 따라서 드러난다’ 하여 宇宙의 運行論의 側面을 말한 것이어서, 그의 心性論에 理氣互發說과 一脈相通한다¹³⁾하였다.

以上을 整理해 보면 理는 스스로 動靜하는 것이며 極尊無對하여 物을 命令하는 것이며 無爲고 氣는 貌象과 形氣가 있어 六合안에 가득한 것이며 聚散하는 것으로 凝聚하면 有로 되고 發散하면 無로 되며 有欲이라고 하였다. 理와 氣의 關係는 理氣不可分開, 理自理·氣自氣, 理는 宇宙生成과 構成의 主宰原理이며 氣는 그 材料라고 하였다. 또 理의 造化에 대해서는 理가 發動하면 氣가 따라서 生하며 氣의 造化에 대해서는 氣가 發動하면 理가 따라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2) 栗谷說

動靜에 關하여, 栗谷은 退溪와는 달리, 理는 無爲이고 氣는 有爲이므로 ‘氣가 發하여 理가 乘하는 것’^{21,28)}이라 했다. 卽 陰陽이 動靜하는 것은 그 機가 스스로 그런 것이지 이 것을 使役함이 있는 것이 아니며, 陽이 動한 즉 理는 動에 라는 것이니 理動이 아니요, 陰이 靜한 卽 理는 靜에 타는 것이니 理靜이 아니므로, 朱子는 “太極이란 것은 本然의 妙이요, 動靜이란 것은 太極이 타는 바의 機”라 하였다. 陰이 靜하고 陽이 動하는 것은 그 機가 그러한 것이며, 그 陰이 靜하고 陽이 動하는 所以는 理이므로 周子가 “太極이 動하면

陽을 낳고 靜하면 陰을 낳는다.”라 한 것은 未然을 原察하여 말한 것이며, 動靜은 다는 바의 機라 한 것은 그 已然을 보고 말한 것이다. “라 하여, 周子の『太極圖說』에 ‘動而生陽 靜而生陰’이라 한 것은 太極(理)의 動的인 것은 陽을 生하게 하고, 靜的인 것은 陰을 生하게 하는 原理로서 아직 陰陽(氣)이 이미 動靜하는 것은 太極(理)이 이미 動之靜之하여 主宰하므로 氣機를 乘한 狀態인 已然을 말한 것이다^{12, 21, 28)} 하였다.

理와 氣의 特性은, 理는 無形·無爲이고 氣는 有形有爲이며, 無形無爲로서 有形有爲의 主宰가 되는 것은 理이고 有形有爲로서 無形武威의 器材가 되는 것은 氣라 하였으며, 發하는 것은 氣이고 發하는 까닭은 理이니, 氣가 아니면 發할 수 없고 理가 아니면 發할 까닭이 없다^{21, 28)} 하였다. 즉 理는 未發時의, 能히 動하는 것이 아닌, 發(動)하는 理由이며, 氣는 已發時의 發하는 그 自體이다.

理와 氣의 先後에 대해서는, 理氣는 始作이 없으므로 先後를 말할 수 없지만, 所以然을 推本한다면 理는 樞紐根底 이므로 부득불 理를 먼저라 해야 한다²¹⁾ 했으니, 이는 天池氣化는 그것이 모두 現世界의 具現이므로 氣化以前에 그렇게 氣化하는 所以로서의 現世界가 먼저 存在한다는 것이며, 그러면 理란 超時空的存在로서 現像의 時空世界는 모두 理의 現狀일 따름이다¹²⁾ 하였다.

以上을 整理해 보면 理는 無形·無爲·主宰者·所以發者이며 氣는 有形·有爲·理의 器材·發之者라는 것이다. 理氣는 始作이 없으므로 先後가 없으나 所而然을 미루어 보면 理는 樞紐根抵이므로 理를 先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理는 無爲이고 氣는 有爲이므로 氣發而理乘이라고 하였다. 栗谷이 周子 太極圖說을 解析하는데 있어서, 動而生陽 靜而生陰은 ‘理의 動的인 것은 陽을 生하게 하고, 靜的인 것은 陰을 生하게 한다’는 原理로서 未然을 말한 것이며, 氣가 이미 動靜하는 것은 理가 이미 動之靜之하여 主宰하므로 氣機를 乘한 狀態라 하여 그것은 已發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2) 四端 七情

孟子는 四端을 仁·義·禮·智의 端인·側隱·羞惡·辭讓·是非의 마음이라 하였다. 이 仁義禮智는 耳·目·口·鼻·四肢 곧 肉體의 制約을 받는 氣質之性과는 다른, 마음에 根本한 性이니,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누구나 놀라 條件없이 그 아이를 救하려 할 것이며, 한순간의 飲食에 生命이 달려있을 때라도 良心에 거리낌이 있게 되면 비록 乞人일 망정 그것을 꺼리게 될 것인 즉, 이는 人間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차마 못하는 人間의 마음이라 하여 이로부터 人間이면 누구나 仁義禮智의 本性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四端은 仁義禮智의 善한 本性을 드러내는 善한 情이라 하였다.

七情이란 『禮記』에서 말한 喜·怒·哀·懼·愛·惡·欲이니, 人間이 날 때부터 本能的으로 가지고 있는 情의 總和이며, 人間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情의 總稱이므로 비록 더 細分할 수 있더라도 意味上 이 안에 包含된 것이라³⁶⁾ 하였다.

그러므로 七情의 特性은 一面的으로 善하다던가 惡하다고 할 수 없게 되며, 이 점에서 純善인 四端과 對比되는데 이 四端과 七情을 理氣의 關係에서 어떻게 解析하는가에 따라 退溪를 中心으로 하는 主理論적 立場과 栗谷을 中心으로 하는 主氣論的 立場사이에 差異가 있게 된다³⁶⁾ 하였다.

(1) 退溪說

情이 發하는 根源에 對하여, 四端은 理가 發할 때 氣는 이것을 따르며 七情은 氣가 發할 때 理는 이것을 탄다²⁴⁾ 하였다. 이 말은 當時 鄭秋巒이 그의 天命圖에서 “四端은 發於理, 七情은 發於氣”라 한 것을 退溪가 “四端은 理之發, 七情은 氣之發”이라고 改作해 준 것에 대하여 高峯이 異議를 提起함으로써, 以後 8年間 退. 高間의 書翰 往復討論 끝에 退溪가 高峯의 意見을 收用함으로써 내린 結論이라¹³⁾ 하였다. 退溪에 있어서 理

는, 宇宙論의인 面에서는 太極이 스스로 動靜한다 하여 太極은 곧 理인 關係에 依하여 理가 動靜하는 主體가 되며, 心性論의인 面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發하지 않을 것인 性이 理²⁴⁾이고 理가 發하여 四端이 되므로, 能히 發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四端과 七情이 發하는 根本에 대하여는, 四端의 境遇 純粹한 理 或은 仁義禮智의 性이라 하였으며, 七情의 境遇 氣를 兼한다거나 或은 外物이 사람의 形氣에 接觸되어 그 마음 가운데 움직여 境에 緣해서 나온 것²⁴⁾이라 하여, 그 區分을 두고 있다. 高峯은, 四端에 대하여는 善한 쪽을 뽑아 낸 것으로 專指理라 하여 退溪와 見解가 類似하나, 氣에 대하여는 理氣雜으로서 兼理氣라 主張하여 退溪와는 見解를 달리 하였다¹³⁾했다. 高峯의 理氣·四端七情에 대한 主된 立場은 ‘七情 밖에 다시 四端이 있지 않으며, 四端은 실로 純粹하게 天理가 發한 것이나 七情의 밖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七情 가운데서 發하여 中節한 것의 苗脈일 뿐이니 四端七情을 對學互言하여 純理·兼氣라 할 수 없으며, 理는 氣의 主宰이고 氣는 理의 材料인데 利己가 실로 나뉘어 있으나 그것이 事物에 있어서는 실로 混淪하여 나눌 수 없다.’^{4,23)}하였다.

性情에 있어서 理氣가 作用하는 樣相은 理·氣가 合하여 生하므로 互發하되 發할 때에는 相須하며, 互發한즉 各自 主되는 바를 알 수 있고 相須한 즉 서로 그 가운데 있어서 分別해서 말할 수도 있고 渾淪으로 말할 수도 있다 하였다.

즉 理氣의 不離를 渾淪으로, 그 不雜을 分別로 表現하였으며¹³⁾, 特히 四端의 境遇, “그대의 意見(이미 發함에 理가 氣를 타고 行하며 四端도 氣라고 한 高峯의 意見)의 仁·義·禮·智를 發하지 않은 때의 이름으로 생각한 까닭으로 純理라 일컫고, 四端은 이미 發한 뒤의 이름이니, 氣가 아니면 行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亦是 氣라 하였는데, 나의 생각에는 四端이 비록 氣를 탄다 하겠으나, 孟子가 가리킨 것은 乘氣處에 있지 않고 純理發處에 있기 때문에 仁之端·義之端이라 하

였고, 뒤의 賢人들도 또한 골라내어 善의 한 쪽만 말하였을 뿐이다”^{11,24)}하여 未發時 부터 純粹한 理에 發하는 根本이 있다³³⁾하였다.

七情에 대한 善惡的 判斷要件 가운데, 怒에 있어서는 血氣의 怒와 義理의 怒의 差異에 의하여 그 善惡 與否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大概情이란 것은 氣가 發하여 理가 탄 것인데, 마음에 거슬리면 怒가 發하되 理에 마땅하면 이것은 義理의 노여움이고, 怒가 發하여 理에 마땅치 못하면 血氣의 노여움이라 하였으며, 그 理由는 怒할 때에 理가 主宰가 되고 氣가 그 命을 들으면 이것은 義理의 노여움이고, 또 發이 맞지 않고 오로지 氣만이 행하고 理가 마침내 감추어진다면 이것은 血氣의 노여움이며, 따라서 義理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氣를 타고 있는 理이며 血氣라는 것은 밖으로 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發하는 氣라 했으며, 그러면, 氣와 理가 서로 勝負가 되어 氣가 거칠어서 이기면 理는 敗한 것이고 理가 達하여 이기면 氣가 順할 것이라¹¹⁾하였다.

以上을 要約하면, 情의 善·惡의 側面에서 四端과 七情으로 分別할 수 있으며, 理와 氣가 互發하고 相須하는 가운데, 四端은 理가 發하매 氣가 따르며, 七情은 氣가 發하매 理가 타는 것이다. 또 七情이 氣에서 發하더라도 中節한 것은 理가 氣를 乘하여 主가 되는 것이니 善하며, 七情이 發할 때에 理에 마땅하면 義理의 情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退溪의 四端 理發而氣隨之 七情 氣發而理乘之라고 한 句節은 四端 理之發 七情 氣之發에서 改正된 것인데 이는 高峯과의 論辨을 通하여서였으며, 高峯의 主된 立場을 보면 七情 밖에 다시 四端이 있는 것이 아니며, 四端은 실로 天理가 發한 것이나 七情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七情 가운데 發하여 中節한 것의 苗脈이며, 四端七情을 對學互言하거나 純理 或은 兼氣라고 할 수 없으며, 理는 氣의 主宰이고 氣는 理의 材料이니 理氣는 實로 나뉘어 있으나 事物에 있어서는 實로 混淪하여 나눌 수가 없다^{4,23)}한 것이

그것이다.

(2) 栗谷說

栗谷에 있어서 四端은 七情 가운데 善一邊이고 七情은 四端을 合한 總會者²¹⁾이며, 따라서 七情은 이미 그 가운데 四端을 包含하고 있어서 四端이 七情이 아니라든가 七情이 四端이 아니라 할 수 없다²¹⁾했다. 즉 喜怒哀懼愛惡欲의 七情을 七個感情만으로 보지 않고 心發動의 全部(總會者)로 보았으며 여기에 善惡의 觀念을 結合시키면 七情은 善惡을 兼하고 四端은 七情에 있는 善惡 가운데 善一邊이 되므로 七情이 四端을 包含하며, 따라서 氣包理가 된다¹²⁾하였다. 그리고 性 가운데 本然之性은 理만 專言함으로써 氣에까지는 미치지 않은 것이고 氣質之性은 氣까지 兼言한 것으로서 理를 싸아서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며, 四端과 七情은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같아서 本然之性은 氣質을 兼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고 氣質之性은 도리어 本然之性을 兼하므로 四端은 七情을 兼할 수 없으나 七情은 四端을 兼한다²¹⁾하였다. 이것은 氣가 凝聚한 것이 氣의 質이므로 氣包理는 곧 氣質包理이며, 性則理이므로 氣質包理는 氣質包性이 되어서 氣質之性은 本然之性을 包含한다 하였으며 이것이 곧 七情包四端이 되니, 本然之性의 純善처럼 四端도 純善이고 氣質之性의 有善惡처럼 七情도 有善惡이라¹³⁾하였다.

七情을 四端과 對比해 보면,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고(喜), 哀에 臨해서는 슬퍼하고(哀), 親熟한 바를 보고 慈愛하며(愛), 理를 보면 그것을 窮究하고자 하며(欲),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欲) 仁之端이며, 怒해야 할 것을 怒하고(怒),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는 것은(惡) 義之端이며, 尊貴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懼) 禮之端이며, 기뻐하고 怒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할 즘음을 當하여 마땅히 기뻐해야 하고 怒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바를 아는 것과 (이는 是에 속함), 또한

마땅히 기뻐하지 않아야 하고 怒하지 않아야 하고 슬퍼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바를 아는 것은 (이는 悲에 속하는데, 이는 七情을 합하여 옳고 그른 情을 아는 것임) 智之端이라 하여 七情이 發하되 道理에 맞으면 四端이 됨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是非의 마음은 思維의 過程을 거쳐 行爲의 當不當을 아는 것이니, 具體的으로 思를 情의 하나라고 列擧하지 않았더라도 四端의 하나인 是非之心의 한 機能에 屬하므로 七情包四端에 의하여 東洋醫學에서처럼 思를 七情의 하나로 推論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類似하게 西洋醫學의 精神分裂病에서 볼 수 있는 感情表現의 不調和는 주로 기분과 생각(意識的 思考觀念) 사이가 遊離되어 一致되지 않는 境遇인데, 예를 들면 가까운 親知의 죽음을 말하면서 킬킬거리고 웃는 境遇가 그것이라²²⁾하였다.

情의 善惡은 어디에서 오는가? 즉 情이 發하는 根本은, “方寸之中(心中)에 처음부터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²¹⁾이라든가, “天池의 變化는 우리 마음이 發하는 것이니, 天池의 變化가 理가 變化하는 것과 氣가 變化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또한 理가 發하고 氣가 發하는 差異가 있게 되겠는데, 天地에 이미 理化·氣化하는 差異가 없는 즉 우리 마음도 理發·氣發하는 差異가 없다.”²¹⁾고 하여 未發時의 理·氣의 作用을 否定하였으며, “發하는 곳에 두 端(人心·道心의 端)이 있을 뿐 이므로 道心을 發하는 것이 氣이지만 性命이 아니면 道心이 나지 못하고, 人心에 根源하는 것이 理이지만 形氣가 아니면 人心이 나지 못하는 것이니, 道心은 純然히 天理이므로 善만 있고 惡이 없으며, 人心은 天理도 있고 人欲도 있으므로 善도 있고 惡도 있는 것이어서, 예컨대 마땅히 먹을 경우에 먹고 마땅히 입을 경우에 입는 것은 聖賢도 免치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天理요, 食色의 생각으로 인하여 홀로 惡이 된다면 이는 人欲이다.”²¹⁾하여, 發하는 즘음 理氣가 混淪한 가운데 理가 主宰가 되느냐 혹은 氣가 理를 가리우게 되느냐에 따라 善惡이 決定된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道心은 그 어버이에 孝道하고자 하고 임금에게 忠誠코자 하는 것과 같이 道義를 위하여 發하는 情이며, 人心은 주립에 먹고 마시고자 하고 추위에 옷을 입고자 하는 것과 같이 口體를 위하여 發하는 情이라 하였다. 理가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은 氣의 淸濁에 달렸으니, 心이 發할 때 비로소 善惡이 나뉘어, 淸氣가 發한 것이 善이 되고 濁氣가 發한 것이 惡이 되나 그 根本은 天理일 뿐이며, 情의 善한 것은 淸明한 氣를 乘하여 天理를 따라 直出하여 中을 잃지 않고 仁·義·禮·智의 端이 되므로 四端이라 부르고, 情의 不善한 것은 亦是 理에 根源하였으나 이미 汚濁한 氣의 가리운 바가 되어 그 本體를 잃고 橫生, 혹은 過하기도 하고 不及하기도 하여, 仁義禮智에 根本한 것이면서 도리어 이를 害한다²¹⁾하였다.

以上을 要約하면, 七情은 四端을 包含하고 四端은 七情에 比準될 수 있으며, 四端은 本然之性으로 善一邊을 가리키며 七情은 氣質之性으로 中節·不中節에 따라 或善 或惡하니, 善惡은 心이 動하려 할 즈음에 中節한지 過·不及한지에 따라 決定된다고 하였다.

3) 修養論

理氣·四端七情은 結局 人間이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밝힌 것으로 性理學의 本意는 道の 實踐에 있다고 하였다. 退溪의 聖學十圖와 栗谷의 聖學輯要에서는 儒學 및 性理學의 全般에 대하여 그 重要한 條目이 圖表와 함께 體系的으로 整理되어 있다.

○ 遏人欲存天理 :

어떻게 하면 人欲을 막고 天理를 存하며 그로써 理想의 人間象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人心은 危殆로와 人欲에 흐르기 쉬우므로 人心을 잘 制御하는 것이 그 하나이겠고, 道心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擴充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이겠는데 그 方法은 오직 敬으로써 마음을 主宰하

여야 하며,^{5,24,27)}아울러 窮理를通하여 外物의 理와 우리 몸안에 있는 理를 窮究함으로써 天地와 人性을 通達하는 理致를 깨달을 수 있다.^{3,8)}하였다. 이 敬이 마음의 바탕이 되어 獨·克復·心在·求放心·正心·四十不動心하는 心法은 人欲을 막는 곳의 工夫이니 반드시 不動心에 이르면 富貴가 마음을 淫亂하게 할 수 없고 貧賤이 마음을 옮기게 할 수 없으며, 威武가 마음을 屈하게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렇게 하면 道가 밝아지고 德이 成立됨을 볼 수 있으며 戒懼 操存 心思 養心 盡心 七十而從心하는 心法은 天理를 保存하는 곳의 工夫이니, 이것이 반드시 從心에 이르면 마음이 곧 體요, 欲은 곧 用이며, 體는 곧 道요, 用은 곧 義이니, 音聲은 音律이 되고 몸은 도가 되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얻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節度에 맞음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11,24)}하였다.

○ 敬 :

敬에 從事하는 者의 態度는 다음과 같다. “衣冠을 바르게 하며, 그 보는 눈매를 尊嚴하게 하며, 마음을 沈潛하게 하며, 上帝를 대하듯 居하며, 발은 무겁게 놓을 것이며, 손은 반드시 恭遜하게 쓸 것이며, 땅을 밟을 때는 반드시 가려 밟되 개미집도 피하여 돌아가라. 門을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뵈옵는 것과 같이 하며, 일을 할 때는 祭祀를 지내는 것과 같이 하되, 조심조심하여서 혹시라도 안이하게 處理하지 말 것이며, 입을 다물기를 瓶과 같이 하고, 뜻을 防備하기를 城과 같이 할 것이며, 誠實히 하여 혹시라도 가벼이 하지 말아라. 서쪽으로 간다하고 동쪽으로 가지 말며, 일을 당하면 오직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다른데로 쫓지 않게 하라. 둘로 마음을 두 갈래로 내지 말고, 셋으로 마음을 세 갈래로 내지 말며, 마음을 오직 하나로 하여 萬 가지 變化를 살펴 볼 것이다. 이로써 動과 靜이 어짐이 없고 表裏가 서로 바르게 설 것이니, 萬若 사람이 잠깐이라도 間斷이 있으면 私欲이 萬端으로 일어나서, 불이 아니라도 덩

고, 얼음이 아니라도 잘 것이며,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天地의 자리가 바뀌어 三綱이 滅해지며, 九法이 또한 逆하게 될 것이다.”¹¹⁾

밤낮으로,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敬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하였다. “답이 울어 깨게 되면 생각이 차차 일어나게 되니, 어찌 그동안에 고요하게 마음을 整頓하지 않겠는가. 때로는 過去의 허물을 反省하며, 때로는 새로 얻을 것을 생각해 내어, 節次와 條理를 瞭然하게 알아 두어라. 根本이 서게 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洗手하고 빗질하고 衣冠을 端正히 하고 앉아 얼굴빛을 가다듬고 나서, 이 마음을 이끌기를 마치 돌아 오르는 해와 같이 밝게 하여, 嚴肅하고 가지런하며 虛明하고 고요해질 것이다. 이 때에 책을 펴서 聖賢을 대하게 되면, 孔子께서 자리에 계시고, 顏子와 曾子가 앞뒤에 있을 것이다. 聖賢이 말한 것은 고분고분 恭遜히 듣고, 弟子들이 問辨한 것은 反復하여 參考하고 바로잡을 것이다. 일이 이르면 應하고, 곧 가르침을 試驗해 본다. 天理가 赫然하여질 것이니, 恒常 눈을 여기에다 두어라. 일에 응하고 나면 곧 나는 예와 같아질 것이니,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精神을 모으고 雜念을 버려라. 動과 靜이 循環할 때에 오직 마음이 이것을 볼 것이니, 고요할 때는 保存하고 움직일 때는 살피서, 정신을 여러 갈래로 나누지 말아라. 글을 읽다가 여가를 틈타서 간간이 遊泳을 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情性을 休養하여라. 그리고 날이 저물고 사람이 倦怠로와지면 어두운 濁氣가 쉽게 타고 들어오니, 齊戒하고 整齊하여 精神을 明朗하게 하여라. 밤이 오래 되면 잠이 드는데 손을 가지런히 하고 발을 모으며 思維를 하지 말아야 心神이 자리를 잡고 머무를 것이다. 夜氣로써 길러나가라. 貞하면 元에 돌아오니, 생각을 여기에 두고 또 여기에 두어 밤낮으로 꾸준히 계속하라.”¹¹⁾

대저 道라는 것은 어디를 가도 없는 곳이 없고, 잠시라도 떠날 수 없으므로, 君子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警戒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곳에서

도 두려워하고 조심한다고 하였으며, 隱密한 곳보다 잘 드러나는 곳이 없고, 微細한 곳보다 잘 나타나는 곳이 없으므로 君子는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고 하였으니, 이 둘이 竝進하게 되면 聖인이 될 수 있다¹¹⁾고 하였다.

克己 하는데 어려움은 忿怒와 欲心 때문이니 이런 感情을 節制하여야 하며 克己로서 氣質의 病痛을 矯正하면 柔者는 剛하게, 弱者는 強하게 유者は 自立하게, 嚴한 者는 和로써, 急한 者는 寬으로써 調和롭게 하며, 多欲하면 淸淨하게, 多私이면 大公에 이르게끔 하여야 한다⁷⁾고 하였다. 君子가 警戒해야 할 세가지는 젊었을 때는 色을, 壯年이 되어서는 싸움을, 늙어서는 貪得을 경계해야 血氣를 잘 기를 수 있게 되며, 言語를 조심하여 德을 기르고, 飲食을 節制하여 身을 길러야 한다⁷⁾고 하였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涵養은 未發時 寂然한 本處를 思考하지 말고 敬으로 直觀하는 것이며, 已發時에는 省察해야 하는 것이니 惡念은 勇敢하게 斷折시켜 조금이라도 그 苗脈을 남겨두지 말고 善念이라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일이면 그 理致를 窮究해야 할 것이며, 아직 了解하지 못한 것은 了解하여 그 理致를 밝혀야 한다⁷⁾하였다.

檢身은 外治로서, 內治인 正心과 相互補完關係에 있다고 한 것은 身은 心の 器가 되고 心은 身의 主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工夫方法은 다만 容貌·視聽·言語·威儀는 天理를 밝히기 위함이고 誠意·正心·修身은 이 法則을 實踐하기 위함이니 二者가 갖추어진 뒤에야 踐形의 境地에 到達할 수 있으며, 眞實로 마음을 바로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나 바로도록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몸을 닦지 않음도 역시 그 마음의 不正 때문이라^{7,21)}하였다.

3. 七情에 關한 四象醫學的 觀點

東武는 『壽世保元』에서 臟局의 形態에 따라

四類型으로 分類하고 各各의 體質을 性情의 氣가 肺臟 脾臟 肝臟 腎臟에 미치는 影響으로서 整理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情의 生理 病理의 特性和 保養法은 다음과 같다.

1) 情의 生理

○怒:

哀怒의 氣는 陽이니 順動하면 위로 오르는데 怒氣는 가로질러 올라간다. 『內經』의 怒하면 氣가 위로 올라간다는 내용과 많이 符合된다.

少陽人은 怒性이 宏抱한 것이니, 이는 少陽의 눈이 世會를 살피 못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것을 노여워하는 것이며, 怒性은 다름이 아닌 보는 것이라 했으며, 이에 氣가 脾臟에 注入되어 脾臟이 더욱 旺盛해진다³³⁾하였다. 怒性이 宏抱하여 脾臟이 더욱 旺盛해지는 것은 『內經』의 怒는 肝臟의 情志라는 것과는 相馳된다.

여기에서의 性은 順動之氣로서 宋代 主靜說의 性理說과는 反對로 活性論의이라¹⁹⁾하였다. 즉, 性은 四象人의 耳目口鼻가 天機를 살필때, 衆人들이 서로 속이고 업신여기고 돕고 保護함을, 각각 슬퍼하며 노여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니 이는 耳目口鼻가 天機를 듣고 보고 맡고 맛보는 機能이라 하였다.¹⁹⁾

○哀:

哀의 氣는 上升하는 중에 直升한다³³⁾하였다. 『內經』의 悲와 一致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서로 슬픈 感情이라는 점은 같다고 볼 때 氣消한다는 것과는 相馳된다고 할 수 있다.

太陽人은 哀性이 遠散한 것이니, 이는 太陽의 귀가 天時를 살피 못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며, 哀性은 다름이 아닌 듣는 것이라 했으며, 이에 氣가 肺臟에 注入되어 肺臟이 더욱 旺盛해진다³³⁾하였다. 哀性이 遠散하여 肺臟이 더욱 旺盛해지는 것은 『內經』의 悲는 肺의 情志라는 것과 類似성이 있다.

○喜:

喜樂의 氣는 陰이니 順動하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喜氣는 내치듯 떨어진다³³⁾ 하였다. 『內經』의 喜하면 氣가 緩하여진다는 내용과는 별 類似성이 없다.

太陰人은 喜性이 廣張한 것이니 太陰의 鼻가 人倫을 살피 못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며, 이에 氣가 肝臟에 注入되어 肝臟이 더욱 旺盛해진다³³⁾ 하였다. 喜性이 廣張하여 肝臟이 더욱 旺盛해지는 것은 『內經』의 喜는 心의 情志라는 것과는 相馳된다.

○樂:

樂의 氣는 下降하는 中에 틈뻑 떨어지듯 내려간다³³⁾하였다. 喜樂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서로 類似하나 喜는 怒에 대한, 樂은 哀에 대한 相對의 情志라고 하더라도 이들 모두가 『內經』의 七情 가운데 喜에 屬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氣가 緩하여진다는 내용과 相馳된다³³⁾하겠다.

少陰人의 樂性은 深確한 것이니, 少陰의 口가 地方을 살피 못 사람이 서로 保護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이에 氣가 腎臟에 注入되어 腎臟이 더욱 旺盛해진다³³⁾하였다. 樂性이 深確하여 腎臟이 더욱 旺盛해진다 것은 『內經』의 恐은 腎의 情志라는 것과는 相馳된다.

以上에서 性은 天機 (天時·世會·人倫·地方)를 살피는 <知>요, 못 사람이 서로 업신여기고 속이고 돕고 保護하는 자이니 博通者라 하였으며¹⁹⁾ 以上을 要約하면 怒·哀·喜·樂의 氣는 橫升·直升·放降·陷降하며, 少陽人의 怒性은 脾臟을, 太陽人의 哀性은 肺臟을, 太陰人의 喜性은 肝臟을, 少陰人의 樂性은 腎臟을 旺盛케 한다³³⁾하였다.

2) 情의 病理

○怒:

哀怒의 氣가 上昇하되 過多하면 下焦, 곧 肝臟·腎臟이 傷한다 하였으며, 怒氣를 자주 일으켰다

억눌렀다 하면 肝臟의 主着處인 허리 옆구리를 자주 迫蕩케 하여 一定치 않게 되므로 肝臟이 傷한다³³⁾하였다.

哀와 怒는 서로 이루어 太陽人이 哀가 至極하여 다스려지지 않으면 憤怒가 밖으로 튕겨 나온다 했는데, 이때 氣가 肝臟을 激動시켜 肝臟이 더욱 攣인다 하였다. 이런 것은 太陽의 脾臟이 〈交遇〉를 맺을 때 남이 自身을 업신 여기는 것을 怒여워하니 〈交遇〉에 勇通하므로 〈交遇〉가 업신 여기지 않으나, 〈黨與〉에는 雅立하지 못하므로 〈黨與〉가 업신여기니 太陽의 暴怒는 〈交遇〉에 있지 않고 〈黨與〉에 있다³³⁾하였다. 太陽人은 〈黨與〉를 가벼이 여기므로 가까운 〈黨與人〉의 陷穽에 빠지게 되니 치우친 怒氣가 肝臟을 傷하게 하므로 〈黨與〉를 怒로 다스리지 않아야 한다³³⁾하였다. 또 太陽人의 怒心이 爆發하면 裡氣를 傷하고 少陽人의 怒性은 입과 膀胱의 氣를 傷한다³³⁾하였다.

○哀 :

忽然 哀氣를 일으켰다 그쳐다 하면 腎臟의 主着處인 脊曲을 忽然 구부렸다 퍼게 하므로 腎臟이 傷한다³³⁾하였다.

少陽人의 怒性이 至極하여 이기지 못하면 悲哀가 가슴깊이 서린다 했는데, 이때 氣가 腎臟을 激動시켜 腎臟이 더욱 攣인다³³⁾하였다. 이런 것은 肺臟이 〈事務〉를 行할 때 남이 自身을 속이는 것을 슬퍼하니 〈事務〉에 敏達하므로 〈事務〉가 속이지는 않으나, 〈居處〉에는 恒定하지 못하므로 〈居處〉가 속이므로 少陽의 暴哀는 〈事務〉에 있지 않고 〈居處〉에 있다³³⁾하였다. 少陽人은 〈居處〉를 가벼이 여기므로 恒常 안을 主張 삼아 〈居處〉를 마련하는 사람의 陷穽에 빠져 치우친 哀가 腎臟을 傷하게 하므로 〈居處〉를 哀로 다스리지 않아야 한다³³⁾하였다.

少陽人의 哀情은 腎臟 大腸氣를 傷하고 太陽人의 哀心이 深着하면 表氣를 傷한다³³⁾하였다.

○喜 :

喜樂의 氣는 下降하되 過多하면 上焦, 곧 肺臟 脾臟가 傷한다 하였으며, 喜情을 자주 일으켰다 거두었다 하면 脾臟의 主着處인 胸腋을 자주 闊狹케하여 一定치 않게 되므로 脾臟이 傷한다³³⁾하였다.

喜와 樂은 서로 도와 少陰人이 樂이 至極하되 다스려지지 않으면 喜好가 차분 하지 못하게 된다 했는데, 이때 氣가 脾臟을 激動시켜 脾臟이 더욱 攣인다³³⁾하였다. 이런 것은 少陰의 肝臟이 〈當與〉에 關與할 때 남이 自己를 돕는 것을 기뻐하니 〈黨與〉에 雅立하며, 少陰人의 怒는 〈交遇〉에는 勇通하지 못하므로 〈交遇〉가 돕지 않으니, 少陰人의 浪喜는 〈黨與〉에 있지 않고 〈交遇〉에 있다³³⁾하였다.

少陰人은 〈交遇〉를 가볍게 여기므로 生疎한 〈交遇人〉때문에 속임수에 빠져 치우친 喜情이 脾臟을 傷하게 하므로 〈交遇〉를 喜로 다스리지 않아야 한다³³⁾하였다.

少陰人의 喜情은 脾胃의 氣를 傷하게 하고 太陰人의 喜性은 耳 腦 이의 氣를 傷하게 한다³³⁾하였다.

○樂 :

거듭하여 즐거움을 얻었다 잃으면 肺臟의 主着處인 背이가 갑자기 들렸다가 놀 리게 되어 一定치 않게 되므로 肺臟이 傷한다³³⁾하였다.

太陰人의 喜性이 至極하여 가라앉지 않으면 侈樂이 풀이 없게 된다 했는데, 이때 氣가 肺臟을 激動시켜 肺臟이 더욱 攣인다³³⁾하였다. 이런 것은 太陰의 腎臟이 〈居處〉를 다스릴 때 남이 自己를 保護하는 것을 즐거워 하니 〈居處〉에 恒定하므로 〈거처〉가 보호하나, 太陰의 哀는 〈사무〉에는 敏達하지 못하므로 〈事務〉가 保護하지 않으니, 太陰의 浪樂은 〈居處〉에 있지 않고 〈事務〉에 있다³³⁾하였다.

太陰人은 〈事務〉에 對해서는 삼가지 않는 까닭에 恒常 밖으로 나아가 〈事務〉를 일으키는 사

람의 속임수에 빠져 치우친 樂이 肺臟을 傷하게 하므로 <事務>를 樂으로 다스리지 않아야 한다³³⁾ 하였다. 太陰人의 樂情은 肺臟·胃脘의 氣를 傷하게 하고 少陰人의 樂性은 目·려의 氣를 傷하게 한다³³⁾ 하였다.

이상 情에 對하여 人事를 行하는 <行>이며 남이 自己를 蔑視하고·속이고·돕고·保護하는 것이니 獨行者라¹⁹⁾ 하였다. 이 情은 太陽人의 肝臟·少陽人의 腎臟·太陰人의 肺臟·少陰人의 脾臟을 損傷시키므로서 性이 太陽人의 肺臟·少陽人의 脾臟·太陰人의 肝臟·少陰人의 腎臟을 旺盛케 하는 機能과 함께 四象人의 臟局을 形成케 하는 한 理由가³³⁾ 된다. 이러한 性情은 人間關係상 여러 部分에서 各各의 사람마다 能하고 서투른 差異를 가져오며 이로써 혹은 内部臟器를 傷하게 되니 太陽人의 暴怒는 <黨與人>의 陷奔에 빠져 얻으므로 肝臟이 傷하고, 少陽人의 暴哀는 <居處>를 마련하는 사람의 陷奔에 빠져 얻으므로 腎臟이 傷하고, 少陰人의 浪喜는 <交遇>하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 얻으므로 脾臟이 傷하고, 太陰人의 浪樂은 <事務>를 일으키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 얻으므로 肺臟이 傷한다³³⁾ 하였다.

3) 保養法

○四類形別方法：

太陽人은 解역 열隔이 重症이니 治法으로 ??怒를 멀리해야 하며, 또한 恒常 急迫한 마음이 있으므로 한걸음 물러 서서 急迫한 마음을 恒常 高요하게 하면 肝血이 곧 부드러워진다 하였다.

少陽人의 腹痛에는 마음을 安定시키고 恒常 哀怒心을 警戒해야 하며, 또한 恒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안을 살펴 두려워하는 마음을 恒常 安定시키면 제길을 찾게 된다 하였다.

少陰人은 恒常 不安한 마음이 있으므로 한걸음 나아가 不安한 마음을 恒常 安定시키면 脾氣가 살아난다 했으며 또한 恒常 喜 樂心을 警戒해야 한다 하였다.

太陰人은 恒常 樂 喜心을 警戒해야 한다고 했

으며, 또한 恒常 怯心이 있으니 밖을 살펴 怯心을 安定케 하면 제 길을 찾게 된다 하였다.

이는 四象人의 臟局을 이루는 性情 가운데 四臟의 機能을 꺾는 것에 對한 警戒와, 四類型人이 人事에 能하지 못한 바에 따라 얻을 수 있는 不安定한 心情을 다스리는 方法이라 하겠다.

○生의 過程에 따른 周邊人의 役割：

幼年(7-8세 前)은 見聞이 未及하여 喜怒哀樂이 交錯되면 病이 되니 慈母가 마땅히 保護하여야 하고, 少年(25세 前)은 勇猛이 未及하여 喜怒哀樂이 交錯되면 病이 되니 智慧로운 아버지나 有能한 兄이 마땅히 保護해야 하며, 壯年은(38-9세 前)은 어진 아우나 벗이 도와줄 수 있으며, 老年(56-7세 前)은 孝誠스런 子孫이 扶養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는 人生의 모든 時期에 그에 適合한 周邊人의 役割(사랑)이 重要함을 나타낸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節欲力行：

簡約·勤幹·警戒·見聞은 壽를 얻으며 必히 侈色을 멀리하고, 酒食에 潔白하고, 權勢를 피하고, 財貨에 清廉하여지니 特히 市井사람들이 簡約하고, 農夫가 勤幹하고, 士林이 警戒하고, 山谷사람들이 見聞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 했다.

사람됨이 嬌奢하면 侈色을 탐하므로 居處가 荒涼해 지며, 懶怠하면 酒食을 좋아하므로 처신하는 것이 庸劣해지며, 偏急하면 權勢를 다투므로 마음씨가 煩亂하며, 貪慾스러우면 財貨 때문에 죽게 되므로 事務가 錯亂해지지만, 淑女를 恭敬하면 色도 中道를 얻고, 좋은 벗을 敬愛한다면 酒食으로도 德을 밝힐 수 있고, 賢人을 높인다면 權勢·術數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어려운 百姓을 保護해 준다면 財貨도 그 공적을 다 이루게 될 것이라 하였다.

恭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식은 배고픔을 견딜 정도만 들고 배부름을 탐하지 않으며, 衣服은 추위를 견딜 정도만 입고 따듯함을 탐하지 않으

며, 筋力은 힘써 일을 하고 安逸을 탐하지 않으며, 財物은 조심스럽게 結實을 얻을 수 있게 하여 苟且하게 얻는 것을 貪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라 했다. 敬은 性理學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基本的인 方法이라 하였다.

喜怒哀樂이 發하지 않은 것을 中이라 하고 發하여 中節한 것을 和라 하였으니, 발하지 않았을 때 항상 경계하면 中에 가까워질 것이며, 喜怒哀樂이 가까워질 것이라 했다.

범위를 넓혀 天下의 病을 治療하는 데는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선을 즐겨하는 것이라 했으니 그 이유는 천하의 병을 얻는 것은 모두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질투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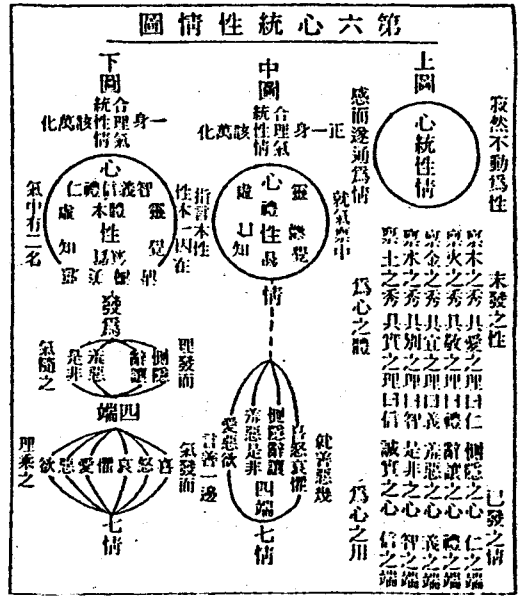
以上을 요약해 보면 사람들이 신분에 따라서도 더욱 요청되는 덕목이 있으며 色·酒·權·財라도 운용하기에 따라 道德과 功을 이룰 수도 있고 폐해를 볼 수도 있다 하였다. 모름지기 욕심을 적게 갖고 힘써 행함으로써 敬을 이루며 情이 발하기 전에는 경계하고 발하면 반성하여 中·和에 가까워지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好賢樂善으로 천하의 병을 치료하여야 한다 하였다.

IV. 總括 및 考察

1. 七情의 物質的 善惡의 基礎

東洋醫學에서는 “神統七情”이라 하였다. 이 神은 心臟 곧 君主之官에서 나오는 神明이다. 이 神이 五臟에 藏하여지면 魂(肝臟)·神(心臟)·魄(肺臟)·意智(脾臟)·精志(腎臟)가 되며 이들 사이의 작용은 兩精相搏한 것이 神이고, 隨神往來한 것이 魂이고, 竝精而出入한 것이 魄이고, 心有所憶한 것이 意이고, 意所存한 것이 志이고, 因慮而處物한 것이 智라고 하였다. 五臟에 응하는 情志가 있으니 喜(心臟)·怒(肝臟)·憂悲(肺臟)·思(脾臟)·悲(肺臟)·驚恐(腎臟)이다.

情志는 氣에 變化를 일으키는 바 氣가 緩(喜)



하여지고, 上(怒)하고, 沈(憂)하고, 結(思)하고, 消(悲)하고, 亂(驚)하고, 下(恐)하는 것이 그것이라 하였다.

受限度를 넘어서면 病이 되니 精神과 肉身을 모두 損傷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退溪全書』〈心統性情圖說〉을 보면 “心統性情”이란 말이 있다. 上圖는, 寂然하여 不動한 것은 性이요 마음의 根本(體)이며 感通하여 情이 되는 것은 마음의 도구(用)이라 하였다. 이 未發할 때의 性의 狀態는 木·火·金·水·土의 倅어남을 받아서 愛·驚·宜·別·實의 理를 갖춘 것은 仁·禮·義·智·信이라 하며, 已發하면 惻隱·辭讓·着惡·是非·誠實之心이 되어 仁·禮·義·智·信之端이 된다 하였다. 이에 心이 性과 情을 統率하므로서 未發之中과 中節之和를 極致할 수 있다 하였다. 다시 말하면 心의 主體者인 사람이 情의 未發 已發時 모두에 있어서 그것을 統率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다. 中圖는 氣稟가운데 나아가서 本然의 性이 氣稟에 섞이지 않은 것으로 天命之性(子思), 性善之性(孟子), 即理之性(程子), 天地之性(張子)과 그것이 發現한 뒤에도 모두 善인 中節之情(子思) 四端七情(孟子)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下圖는 理와

氣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 相近之性(孔子) 性則氣氣則性之性(張子)의 性과 四端(理發而氣隨之: 純善하여 無惡하나 理가 발현하여 미쳐 이루어지지 못하고 氣에 가리워진 뒤에는 不善으로 흘러감) 七情(氣發而理乘之: 不善함이 없으나 理가 發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氣에 가리워지면 不善으로 흘러감)이 그것이라 하였다. 要約해서 理氣를 겸하고 性情을 統率하는 것은 마음인데 性이 發하여 情이 되는 즈음이 한 마음의 機微이고 많은 變化에 요긴하니 善惡이 여기에서 派生된다²⁴⁾하였다.

여기서 栗谷과 상치되는 견해는 四端이 理發而氣隨之한 것이 아니라 七情처럼 氣發而理乘之라 하여 氣一發說을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理氣의 概念은 理가 形而上의 道 事物을 生하게 하는 根本인데 대하여 氣는 形而下의 器이고 事物을 生하는 도구이며, 理가 遍在的·普遍性的인데 대하여 氣는 局在的·特殊性的이며, 理가 所以然·所當然인데 대하여 氣는 所然이며 理와 氣는 不相離·不相雜한 關係가 있다.²³⁾

『壽世保元』에서는, 怒 哀의 氣는 升하고 喜樂의 氣는 降하며, 怒·哀·喜·樂의 性이 宏抱·遠散·擴張·深確하는데 따라 少陽·太陽·太陰·少陰人の 脾臟·肺臟·肝臟·腎臟에 氣가 注하여 그 藏氣가 더욱 盛해지며, 怒·哀·喜·樂의 情이 促急함에 따라 氣가 太陽·少陽·少陰·太陰人을 激動시켜 그 藏氣가 더욱 决이게 된다고 하였다. 太陽·少陽·少陰·太陰의 怒·哀·喜·樂은 交遇·事務·黨與·居處에 勇通·敏達·雅立·恒定하므로 交遇·事務·黨與·居處가 不侮·不欺·助·保하며, 太陽·少陽·少陰·太陰의 喜·樂·怒·哀는 黨與·居處·交遇·事務에 雅立·恒定·勇通·敏達하지 못하므로 黨與·居處·交遇·事務가 侮·欺·不助·不保한다 하였다.

2. 七情이 人體에 미치는 영향과 七情에 영향을 주는 外的要因

〈喜〉는 心臟에서 發하여 肺臟에서 이루어지므로 절도에 넘어서면 心臟·肺臟이 모두 상하게 되며, 喜樂이 그지 없으면 肺神인 魄을 상하게 하여 狂病을 일으키며, 喜怒가 不測하면 陰氣는 부족하고 陽氣가 有餘하여 癰疽를 發하게 한다 하였다. 『壽世保元』에서는 少陰人の 喜情이 脾胃氣를 상하게 하고 太陰人の 喜性은 耳 腦 氣를 상하게 한다 하였으며 太陰人の 樂情은 肺臟 胃腕의 氣를 상하게 하고 少陰人の 樂性은 目·膂의 氣를 상하게 한다 하였다.

〈怒〉는 肝臟과 그 표리관계에 있는 膽·血并於上하고 氣并於下므로 陰이 陽을 勝하므로 病이 心臟에 미치는 것과, 怒가 陰에서 發하여 腎臟에 침범되는 것으로 以上の 四臟이 상하게 되며, 大怒하여 形氣가 끊어지면 薄厥을 일으키고, 건망증과 腰痛, 短氣, 嘔血, 昏泄, 昏迷惶惑, 건咆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하였다.

『壽世保元』에서는, 太陽人の 怒心은 肝臟과 理氣를 상하게 하며 少陽人の 怒性은 口 膀胱氣를 상하게 한다 하였다.

〈憂〉는 肺臟과, 憂하면 神이 상하고 결과 心臟이 상하는 것과, 精氣并於肝하여 憂한 것과, 脾憂愁不解하여 意가 상한 것으로 이상의 四臟이 상하게 되며, 문亂, 四肢不舉, 隔塞否閉氣, 脈斷絶而相下不通, 大小便道偏不得通泄, 六輸不通, 溫氣不行, 積, 胸隔逆滿, 背隱通不已, 心攝, 夢寐不安, 月水時少時多, 內熱苦渴, 肌體枯黑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하였다.

〈思〉는 脾臟과 母臟인 心臟이 상하며, 恐懼自失, 破脫肉, 不得飲食, 腹脹滿, 四肢怠惰, 喘而積氣在中, 時害於食, 五噎, 吐酸, 髮焦, 口苦, 喉熱不散한다 하였다.

〈悲〉는 悲哀動中하여 魂을 상하므로 肝臟을 상하는 것과, 精氣并於肺한 것과, 神不足하므로 心虛한 것으로 이상의 三臟이 상하며, 心下崩, 數搜, 氣上賁鬱, 氣急, 狂, 陰縮而攣筋, 兩脇骨不舉, 善忘不識人, 置物在處還取不得, 筋攣, 四肢浮腫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하였다.

『壽世保元』에서는 少陽人의 哀情은 腎臟·大腸의 氣를 상하게 하며, 太陽人의 哀心이 深着하면 表氣를 상하게 한다 하였다.

〈驚〉은 肝臟·膽·胃와 心臟이 의지할 곳이 없고 神이 돌아갈 곳이 없어 心神이 흩어져 없어지면 이상 四臟을 상하게 하며, 驚駭, 厥, 驚狂, 心悸, 心虛煩悶, 自汗, 體浮, 飲食無味, 吐血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하였다.

〈恐〉은 腎臟과, 心臟, 血不足으로 인한 肝虛, 脾氣가 乘한 것과, 胃氣逆한 것으로 이상의 五臟이 상하게 되며, 骨蒸·骨蒸·精時自下·志恍惚不樂·下焦脹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하였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끊임없이 外氣와 交通하게 되는데 外氣는 하루 혹은 한달 혹은 일년을 주기로 하여 계속 변화한다. 이 外氣는 인체에 도 영향을 미쳐 情志에 변화가 온다 했으니, 『素問』〈八正神明論〉에 “月始生 則氣血始精 衛氣始行 月廓滿 則氣血實 肌肉堅 月廓空 則肌肉減 經絡虛 衛氣去 形獨去”라 했으며 月圓時에는 煩躁症이 생기며 月初時에는 抑鬱症이 생긴다³¹⁾한 것이 그 한 예이다.

3. 保養法과 人間性에의 접근

七情이 과도하면 병이 되므로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욕심을 적게 가지고 뜻을 한가롭게 하여 소박한 생활을 함으로써 도에 합당하도록 하라 하였다. 天氣는 四時에 따라 변하므로 이에 응하여 봄에는 生하게 하며, 여름에는 怒하지 말며, 華英을 成秀케 하고, 氣를 泄하게 하라 하였으며, 가을에는 뜻을 安寧케 하여 秋形을 完화시켜야 하며, 神氣를 거두어 秋氣를 平隱케 하며, 無外其志하여 肺氣를 淸정하게 하라 하였으며, 겨울은 뜻을 감추어야 하며, 私意가 있거든 이미 뜻을 이룬 것으로 여기며, 추위를 멀리하고 따뜻한 것에 나아가며, 皮膚를 泄하지 말아 氣가 탈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였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의 섭리를 깨달아 이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니 현대 산업화된 사회가 가져다 주는 자연파괴 및 과도한 생존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람의 臟局의 형상에 따라 臟을 상하게 하는 情志가 있고, 對人關係(人事)에도 능하고 능하지 못함에 따라 상응하는 情志의 과극으로 말미암아 臟을 상하게 된다 하였다. 즉 太陽人은 怒哀와 黨與가, 少陽人은 哀怒와 居處가, 少陰人은 喜樂과 交遇가, 太陰人은 樂喜와 事務가 肝臟·腎臟·脾臟·肺臟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니, 이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하였다.

어떤 業에 종사하다 보면 그로부터 侈色과 酒食과 權勢와 財貨를 탐하는 마음이 생겨 몸과 마음을 망치니 특히 市井사람들이 簡約하고, 농부가 勤幹하고, 士林이 警戒하고, 山谷사람들이 見聞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며, 色·酒·權·財로 속녀를 공경하고 良朋을 경애하고 賢人을 높이고 窮民을 보호해 준다면 도덕을 밝히고 공적을 이룰 수 있다 하였다.

性理學에서는 本然의 善한 性이 잘 드러나도록 그 주체자인 인간이 몸소 행하여야 할 바를 敬이라 했다. 방법으로 未發할 때 寂然한 본체를 사고 하지 말고 敬으로 直觀할 것과, 已發時에는 省察하여 惡念은 斷絶하고 善念은 理致를 窮究하여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身은 心의 器가 되고 心은 身의 主가 되므로, 檢身 곧 容貌·視聽·言語·威儀를 닦는 것은 外治로서 內治인 正心과 相互補完關係에 있으며 따라서 마음을 바로 할 수 있다면 몸을 닦음도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였다. 意味治療에서는 個人의 肉體, 精神 그리고 靈魂의 本體인 스스로를 깨달음으로써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진정한 良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이는 人間의 本性을 追求한다는 점에서 그 脈絡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

V. 結 論

七情은 臟腑論的·臟局的·善惡의 側面에 따라 그 發生機轉, 人體에 미치는 影響, 治心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東洋醫學에서는 神이 七情을 통솔한다고 하며, 五臟에 藏하여지면 魂(肝臟)·神(心臟)·魄(肺臟)·意智(脾臟)·情志(腎臟)가 되며 이에 五臟은 應하여 喜(心臟)·怒(肝臟)·思(脾臟)·憂悲(肺臟)·驚恐(腎臟)을 發한다.
2. 性理學에서는 心이 性·情을 통솔한다 하며, 心이 發하는 즈음에 理가 發하여 氣가 따르거나 氣가 發하더라도 中節하면 善이 되고, 理가 氣를 主宰하지 못하고 혼탁한 氣에 가리우면 惡으로 흐른다 하였다.
3. <喜>는 過度하면 心肺를 상하게 하고 少陰人은 脾胃氣를 太陰人은 耳腦이 氣를 상하게 하며, <樂>은 過度하면 太陰人은 肺臟 胃腕의 氣를 少陰人은 目·膂의 氣를 상하게 한다.
4. <怒>는 過度하면 肝臟·膽·心臟·腎臟을 상하게 하고 太陽人은 肝臟과 理氣를, 少陽人은 口·膀胱氣를 상하게 한다.
5. <憂>는 過度하면 肺臟·脾臟·肝臟·心臟을 상하게 하며, <思>는 脾臟·心臟을 상하게 한다.
6. <悲>는 肺臟·肝臟·心臟을 상하게 하며, <哀>는 少陽人의 腎臟·大腸의 氣를, 太陽人의 表氣를 상하게 한다.
7. <驚>은 膽과 胃·心臟·肝臟을 상하게 하며, <恐>은 胃와, 心臟·腎臟·肝臟·脾臟을 상하게 한다.
8. 욕심을 적게 가지고 소박한 생활을 하도록 하며 四時의 氣에 순응하므로써 道(自然의 섭리)에 따른다.
9. 心이 未發할 때는 寂然한 本處를 敬으로 直觀하며, 已發時에는 省察하여 善惡에 따라 窮

究斷絶해야 한다.

10. 臟局에 따라 太陽人은 怒性哀情을 少陽人은 哀性怒情을 少陰人은 喜性樂情을 太陰人은 樂性喜情을 警戒해야 하며, 太陽·少陽·少陰·太陰人의 喜·樂·怒·哀로 黨與·居處·交遇·事務를 대하지 않아야 한다.

以上에서 人間은 七情을 統率하고 스스로 善을 이룩할 수 있는 主體者로서의 可能性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七情에 대한 多面的 研究는 人間性에 대한 多様な 資料를 提供함으로써 그 本質을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로서 價値 混沌과 道德倫理喪失의 病理現象과 그것으로부터 이르지 모르는 人間破壞에 대한 適切한 解決策이 導出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姜永善: 『哲學大辭典』, 서울, 學園社, 1963, pp. 552-554
- 2) 高柄鶴: 『意味治療』, 서울, 맥밀란, 1985, p. 190
- 3) 郭信煥: "韓國儒教哲學의 源流와 展開", 『哲學思想의 諸問題』, 城南, 精神文化研究院, 1986, pp. 40-41
- 4) 奇大升: 『高峯全集』, 서울, 成均館大學 大東文化研究院, 1976, p. 247
- 5) 金基鉉: "退溪와 栗谷의 人心道心說 比較研究", 『哲學研究』, 서울, 高大哲學會 9輯, 1984, p. 74
- 6) 金洛必: "性命論과 精氣神論", 서울, 泰東古典研究院 p. 200
- 7) 金益洙: "栗谷의 實踐哲學", 『栗谷哲學과 韓國의 性理學』, 栗谷思想研究院, 大田, 1986, p. 9, 29, 31, 34, 40.
- 8) 柳正東: "朝鮮朝 初期에 있어서의 朱子學의 特性과 그 社會的 機能", 『哲學思想의 諸問題』, 城南, 精神文化研究院, 1985, p. 161
- 9) 柳熙英: 『東醫精神科學』, 서울, 경원문화사, 1983, pp. 24, 42-43

- 10) 馬,張合註:『黃帝內經』,台北,台聯國風出版社,〈素問〉pp. 4, 10, 11, 20, 42, 44-47, 83, 188, 276, 320, 326, 406-407, 410, 413-413,〈靈樞〉pp. 27, 57-60
- 11) 民族文化推進黨:『國譯退溪集』, 서울, 1977, pp. 153-159
- 12) 裴宗鎬:“栗谷의 哲學體系”,『栗谷哲學과 韓國의 性理學』,大田,栗谷思想研究院,1985, pp. 82-83
- 13) 裴宗鎬:“退溪哲學과 그 展開”,『傳統과 思想』,城南,精神文化研究院,1990, p. 257
- 14) 徐有渠:『林園十六志』,서울,서울대 古典刊行會,1967, p. 19-21
- 15) 宋鷺水:『中醫病因病機學』,北京,人民衛生出版,1987, p. 106-107
- 16) 尹絲淳:“性理學的 導入과 그 理解”,城南,精神文化研究院,1986, p. 196
- 17) 尹絲淳:“退溪의 人間觀”,『哲學 宗教思想의 諸問題』,城南,精神文化研究院,1989, p. 160
- 18) 李相孝:『東醫精神科學』,서울,杏林出版,1984, p. 53-63
- 19) 李乙浩:“李東武四象說論考”,『黃帝醫學』,大邱,제한동의 學術院,1976, p. 121-122
- 20) 李乙浩:“李東武四象說의 經學的 基調”,『黃帝醫學』,大邱,제한동의 學術院,1977, p. 311
- 21) 李珥:『栗谷全書』,서울,成均館大學 大東文化研究院,1971, pp. 198, 282-283
- 22) 李定均:『精神醫學』,서울,一潮閣,1988, p. 158
- 23) 이진표:“高峯奇大升의 儒學思想”,『哲學研究』제 10집, 서울,高大哲學會,1985, p. 61
- 24) 李滉:『退溪全書』,서울,成均館大學 大東文化研究院,1971, pp. 208-210, 376, 402, 407, 411, 416-417
- 25) 楊上善:『黃帝內經太素』,臺北,世界書局,民國 60, p. 436
- 26) 張介賓:『張氏類經』,서울,書苑堂,1977, pp. 25, 748-749
- 27) 全敬進:『氣의 思想』,이리,圓光大出版局,1987, pp. 502-507
- 28) 정종복:『栗谷集』,서울,大洋書籍,1972,
- 29) 蔡茂松:『退栗 性理學的 比較研究』,서울,京仁文化社,1982, pp. 8-9, 22
- 30) 蔡仁植:『국역연주醫學入門』,서울,南山堂,1980, pp. 615-622
- 31) 賀海軍:“抑鬱狂躁與月亮圓缺變化的 關係”,『遼寧中醫雜誌』,북경,遼寧中醫學院,1991, p. 23
- 32) 許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1981, pp. 94-97
- 33) 洪淳用:『四象醫學原論』,서울,杏林出版,1985, pp. 44, 48-51, 61, 67, 74, 116, 120-122, 124-126, 140, 143, 259, 365, 368
- 34) 皇甫謐:『鍼灸甲乙經』,北京,人民衛生出版社,1979, p. 287
- 35) 朱熹:『朱子大全』,臺北,中華書局,民國 59, p. 36
- 36) 張淑必:“栗谷心性說의 理氣論의 特性”,『哲學研究』,高麗大,1983, p. 81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finding out the clue to the medical solution to the pathological phenomena of the dehumanizing and demoralizing state of our society by centering around the Chiljeong that originates from Oriental Medicine, Sung Confucianism and Sa-sang Medicine(四象醫學). In these fields,

the Chiljeong is based on the theory of Eum-yang and Viscera(陰陽·臟腑論) in Oriental Medicine, on the problems of good and evil in Sung Confucianism and on the theory of Sa-sang Visceral Localization(四象·臟局의 理論) in Sa-sang Medicine.

The principles of generation of Chiljeong : In

case of Oriental Medicine, Sin(神) controls Chiljeong and if it is stored in five Viscera, it becomes Sin in the Heart, Hon(魂) in the Liver, Sa(思) in the Spleen, Bee - Woo(悲 · 憂) in the Lung, and Kyeong - Kong(驚 · 恐) in the Kidney. Then five Viscera react with outer stimuli or Sin, it gives off Chiljeong as Joy(from the Heart), Anger(from the Liver), Thought (from the Spleen), Anxiety and Sorrow(from the Lung) and Surprise and Fear(from the Kidney)

In Sung Confucianism, Sim(心) controls Seong - jeong(性 · 情), and at the moment of that Sim gives off Jeong(情), it becomes good when the Li(理) gives off itself and then Chi(氣) follows Li, or Chi gives off itself and is regulated optimally, but it becomes evil when Li cannot preside over Chi and then shaded by cloudy Chi.

The pathology : If the Chiljeong exceeds one's capacity, the corresponding Viscera will be damaged, and the Passions(喜 · 怒 · 哀 · 樂) that may harm to four types of constitution severely are the Joy and Pleasure(in Tae - eum - in 太陰人 and So - eum - in 少陰人) and Grief and Anger(in Tae - yang - in 太陽人 and So - yang - in 少陽人), so one should be alert on some passions by regarding his constitutional frailty. More over, because of the variations in Sa - sang Visceral Localyzatin there is various ability in human affairs, but as

the clumsiness in human affairs may make him hurt by it, so one should be prevented from these passions and human affairs, that is flowing Joy and Participations(黨與) in Tae - yang - in, flowing Pleasure and Dwelings(居處) in So - yang - in, explosive Anger and Companies (交遇) in So - eum - in, explosive Grief and Affairs(事務) in Tae - eum - in.

How to cultivate the human nature : The ultimate purpose in Oriental Medicine is preserving Cheon - Jin(天真), that is following the Tao(道) by making him be in harmony with the Chi(氣) of the Seasons and by living a simple life. In Sung Confucianism, the way preventing the lustful desire and preserving Cheon - li(天理) is to observe directly the calm, original place of human nature with reverence, when Sim has not given off itself yet, and when Sim has already given off, it also is to meditating on one's passion and thought that the principle of good should be researched on or the evil should be cut off according to it's being good or evil.

Such like as these various aspects of research on the Chiljeong it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human nature by producing the various materials on it, moreover, by doing so, we can lead out appropriate solution on the confusions of judgement on value and demoralization.